

# 전남 최초 '석조 전시관' 3代 장인정신 꽃피다

## 목포 '손창식 전시관' 개관

예향 목포에 이색 전시관이 개관했다. 미술 전시관도 아니고 도자기나 유물 전시관도 아니다. 화제의 전시관은 지난 12일 목포시 석현동에 문을 연 석조(石彫) 상설 전시관이다.

'손창식 전시관'으로 명명된 이곳 야외 전시장(9800㎡ 규모)에는 크고 작은 석조 작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이 전시관이 주목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전남 최초의 석조 전시관인데다가, 3대(代)를 이어 온 조각 가문이기 때문이다.

손 씨 가문의 석공과 첫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 명인의 부친인 손양동(98)옹이 지난 1935년 대성동에 석공방을 열고 석건축 사업을 펼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러 손창식(59) 씨가 석현동으로 옮겨와 지난 1977년부터 가업을 계승한 이후 3대인 손유진(28·여)씨에 이르고 있다.

손창식 명인은 "목포는 예향이고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람은 나누면 배(俵)가 된다'는 말처럼,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공감하면서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관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 그는 "평소에 딸과 장인 정신이 깃든 석조 작품을 후세에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면서 "부친이 이룩하지 못한 조각가로서의 열원이 2대에 이르러 빛을 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전시관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얼굴 형상이 눈에 띄게 많다.

키에 비해 두상(頭像)이 커 비례나 기운기도 맞지 않고, 눈은 작거나 크고 어떤 것은 부릅뜬 형상을 하고 있다. 옷이나 울고 찡그리거나 무표정해 표정도 각양각색이다. 한마디로 된장국 같은 토속적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석조는 실내보다는 야외 전시장이 더 제격이란다.

손 명인이 주로 얼굴 형상을 조각하는 이유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그려내는 최상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얼핏 봐선 조각을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미완성으로 느껴지지만, 내면세계의 거울인 얼굴을 표출해 내는 데는 돌만큼 적합한 재질이 없다"는 그는 "진정한 조각은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돌이 가진 형상을 고집어내는 것"이라며 "돌이 간직하고 있는



목포시 석현동에 지난 12일 문을 연 '손창식 전시관'에는 석조작품 2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손창식 전시관' 전경.



3대째 이어가고 있는 조각 가문. 왼쪽부터 손창식 명인, 아버지 손양동 옹, 손녀 유진 전수자.

## 9800㎡ 규모 200여점 전시 80년 조각명인의 혼 면면히 석조 문화 보존·후진 양성 시민과 문화 향기 공유키로

깊은 맛은 어느 장르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예찬론을 폈다.

그의 작품은 한국 고유의 전통 조각 기법과 사상에 바탕을 둔 조형성을 기반으로 현대의 감성을 접목시켜 돌을 통해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손 명인은 전통 석조품 제작과 창작을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학술적인 토대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근대 석조미술의 양식과 기법에 관한 연구-목포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석사 논문을 발표해 목포지역의 근대 석조 건축물의 역사와 석공방의 전승 계보, 석공방의 실태와 보존 현황을 체계화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대한민국 명인(09-235호) 칭호를 받았다. 또 2005~2012년까지 광업 진흥공사·조선대·목포대 등에 출강해 석조각 기법과 조각 기법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특히 그의 부친인 손양동 옹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석공에 입문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석 건축물이 없을 만큼 목포 일대 근대 석 건축의 산증인이자 손꼽히는 명장이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징용 가서 석공 일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였다"고 회고한 손 옹은 "평생을 석공에 몸 바쳤지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뤄 감회가 새롭고, 명인으로 지정 받아 자랑스럽다"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백수(白壽=99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귀만 약간 어두운 뿐 건강하다. 지금도 돌에 대한 열정은 자식 못지않게 뜨겁다.

손 옹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인 목포대 본관 석조 건축물을 비롯해 경동 천주교회, 완도 수산고등학교, 북교동 천주교회, 무안·일로 천주교회 등을 축조해 근대 석조 건축물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3세대인 손유진 씨,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석공 일을 보고 자라 작업장이 놀이터였고 망치와 정이 장난감이었다.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다 보니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됐

고 그만큼 조각이 친숙하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

그녀는 조부와 부친의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석사 논문인 '1945년 이후 목포지역의 석건축 및 석조각 제작현황과 석공 교육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이 지역 석공방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고 지난 2013년에는 명인 전수자로 지정받았다.

그녀는 "석공 관련 선행 논문이 전무해 논문을 쓰는 데 애로가 많았다. 조부와 부친의 증언이 없었다면 논문은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석공의 학술적 체계 정립을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해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명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돌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후진 양성에 전념할 생각"이라며 "석조문화를 꽃 피우고 예술적 가치를 높여 전통 조각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게 유일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3대를 이어온 돌의 무게만큼이나 평생을 망치와 정을 든 거칠고 딱딱해진 명인의 손을 잡아보니 기대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명인은 그 힘든 조각 일을 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것이리라.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 내년 신규 시책 개발 박차

목포시가 내년도 신규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내년 신규 시책은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발하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재원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시책 가운데 '협치와 나눔 봉사'로 시민행복도시 조성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은 소규모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시가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책은 더불어 사는 나눔과 봉사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상호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정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치행정과는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2개 그룹으로 묶어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동(洞) 자생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자매결연 각 단계 간 정

보교류와 재능기부 등 공동 사업을 발굴해 협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시책은 선도 시민사회 단체의 노하우를 전파시켜 각 단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박홍률 시장의 주요 공약인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정동 주민센터(동장 김영숙)와 목포 동중등학교(교장 김남삼)는 상호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도모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지난 4일 동중등학교 방음벽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에는 소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성과를 거둬 유사 선진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고물(古物) 자연사박물관' 특별전 20일~11월 23일

### 개관 10주년 맞아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두 달간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유치와 홍보를 위한 '고물(古物)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에는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유명한 환경예술가 최정현 작가의 작품 160점이 전시된다. 전시품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폐품, 고철을 이용한 동물 조형 작품이다.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구 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속의 폐품들이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현장학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04년 문을 연 이후 전남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경찰, 서부초교 앞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최근 산정동 서부초등학교 앞에서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안동준 서장과 문현주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패트를 맘, BBS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등교길 학생들과 함께 '하이 파이브'를 하며 교감하고, 학교폭력 근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기 등 이색 퍼포먼스도 함께 벌였다.

안동준 서장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목포시민들에게 청소년 선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학교폭력 제로(ZERO)화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 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착순 한정판매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린트에 카드를 제시하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주중/주말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
- 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했으니    061-536-3953